

이 시대의 설교

■ 사사기 1:1~7



유순종 목사
(서울신광교회 담임)

“우리에게 있어 베섹은 무엇인가?
청산하지 않은 채 남겨둔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 장애물을 해결하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다. 그러다보니 사회는 무질서해졌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어두운 시대였다.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길에 갑자기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상황이 찾아왔는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것이 절망의 때를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다.

1.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라고 했다. 여기 ‘여쭙어’라는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깊은 기도로 묻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주관적인 생각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다윗을 보라 수많은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날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응답에 따라 행동했다. 삶의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어두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다.

2.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들어온 상태였다. 그리고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한 시점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아 그들은 싸움을 포기하고 후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라고 했다. 절망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다시 나섰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베섹’이었다. 이 요새는 여호수아 생전에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베섹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이 베섹 정복을 위해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네가 앞장을 서라”고 명령하셨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가운데 대표지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섹 정복에 도전한 결과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4절).

우리에게 있어 베섹은 무엇인가? 청산하지 않은 채 남겨둔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 장애물을 해결하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성도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자 지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은 혼란한 사회가 무질서해졌고, 부정부패가 판을 쳤으며, 신앙의 타락과 극도의 이기주의로 사람들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므로 어두움을 헤치고 밝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한다.

월 <<<

굳은 마음을 제하라

에스겔 36:26~27

마음은 영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불가견적인 기관으로서 지·정·의의 인격이 표출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영은 인간의 삶 전체의 원동력이며 마음을 지배하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하고 내 의지가 강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굳고합니다. 1.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갈아 없애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굳은 마음이며, 닫힌 마음입니다. 고집불통, 생각의 견고한 진을 말씀의 쟁기로 깊이 갈아엎으면 부드러운 마음, 즉 옥토가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2. 가시덤불 같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거둬내야 합니다. 안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감, 상처, 쓴 뿌리, 타락한 옛 성품의 자화상이 굳은 마음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기도의 쟁기로 깊이 갈아 통회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 쓴 뿌리를 뽑아내면 옥토가 됩니다. 3. 옥토를 유지하려면 옥이 죽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능력으로는 실패합니다. 굳은 마음이 떠나가고 말씀과 성령이 나뉘다 스리도록 명령기도를 하십시오.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굳은 마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사 자람이 떠나갑니다. ▶기도 :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최정식 목사
(복원교회 담임)



수 <<<

새 출발

마가복음 10:46~52

단한 문물 통해서도 어떤 사람도, 물론조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생활 중에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문이 닫혀있으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닫힌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다가 위대한 새 출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1.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고, 거지된 지였습니다(46). 인간은 죄의 옷을 입고 고아처럼 고통 속에 살다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변합니다. 2.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47).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 속에 지식을 안고 믿음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때가 옵니다. 믿음이 생기면 확신과 담력 그리고 희망과 기쁨이 생깁니다. 3. 거지 옷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며 던져버려야 합니다. 바디매오의 누더기옷은 자기 비하, 열등의식, 죄절감 등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4.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이며, 행함은 이 에너지를 실제적 생산에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와 부정적인 의식을 벗어버리고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바디매오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새 출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금 <<<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행전 17:22~23

바울과 그 일행(실라, 디모데)이 암비블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유대인의 회당에서 21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출신 유대교인들의 큰 무리와 상당한 수의 귀부인들이 회심하고 바울과 실라를 좇은 반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폭력배를 동원하여 전도를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아텐으로 파신하여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을 냅니다. 그래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아텐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는 이방인들과, 시나 광장에서는 아테네 시민들 및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아텐 사람들이 바울을 일종의 시민공개법정인 ‘아레오바고’로 강연하여 대려잡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한 혈통임을 강조했으며,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고전 10:20~23). 비록 결신자는 적었지만 바울은 최선을 다해 전도했습니다. ▶기도 :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화 <<<

다스림의 법칙

창세기 1:28

생각이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실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1. 다스림의 이미지를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후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밭 같이 밍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었다’고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7). 2.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지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살려낸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이라야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소망과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희망적이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 : I can not이 아니라 I can의 자세로 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이며, 행함은 이 에너지를 실제적 생산에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와 부정적인 의식을 벗어버리고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바디매오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 <<<

세계 선교의 사람이 됩시다

마태복음 28:18~20

예수님은 우리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선교의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막 8:36~37). 3.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교리가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막 9:29). 4.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에 관해 관심 갖고 나아갑니다. 5. 전도의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인간은 다 죄인입니다→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영생과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 세계 선교의 사람이 되실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토 <<<

가장 위대한 능력, 용서

베드로전서 3:9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1.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마 6:14). 용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잠 17:1).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2.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마 18:21~22).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장).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줘라’(롬 12:14). 진정한 용서는 보상에 상관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꼭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남을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종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기도 :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며 실천케 하소서. 아멘.

성결의 복음을 민족과 온 세계로!

원로목사 · 증경총회장 · 총회 임원 초청

송년 모임

초청의 말씀

주후 2011년이 지나 가는 끝자락에 한 해를 뒤돌아보며 송년의 오묘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에 아니 세계 교회에 우뚝 선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하여 부흥사회에서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중히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부흥사회 대표회장 나세웅 목사

- ◆ 일시 : 2011년 12월 16일(금) 오전 11시
- ◆ 장소 : 서울 팔레스 호텔(12층 스카이블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옆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63-1 / T.02)532-0101
- ◆ 문의전화 : 사무총장 김정규 목사 (H.010-7440-6707)
- ※ 부흥사 회원은 전원 참석 요망.

1

오산리 기도원 신년 축복 성회
2012년 2월 13일(월)~17일(금)
장소 :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2

부흥사회 연수교육 및 총회
2012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등록~24일(금)
장소 : 아산 온천 호텔 ☎ (041) 541-5526



석광근 목사



노희석 목사



나세웅 목사



조석근 목사



이기운 목사



김정규 목사

순서자



김소아 목사
원로목사회 회장



강조웅 목사
부흥사회 초대회장



조병항 목사
증경총회장



송재석 목사
증경총회장



이강호 목사
증경총회장



오흥동 목사
증경총회장



고용복 목사
증경총회장



김순갑 목사
부흥사



김부열 목사
지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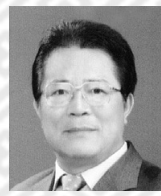
최귀수 목사
총회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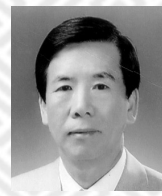
조석환 장로
성결신학원 이사장



신명목 장로
부흥회장



서종로 장로
전국장로회 회장



이종훈 장로
직전 장로회 회장

주관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